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어느덧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어느덧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어느덧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어느덧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는 동안에.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얼린덧	-	-	-	-
어누덧	-	-	-	-
어느덧	-	-	-	-
어느덧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는 동안에.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16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어느덧'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는 동안에.

☞ 어느덧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어느덧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얼런덧 사전 표기 요약	—	—	—	●→	—	—
어느덧 사전 표기 요약	—	—	—	—	●→	●→
어느덧 사전 표기 요약	—	—	—	—	●→	●→
얼년덧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어느덧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어느덧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어느덧 문헌 수록 표기	—	—	—	—	●→	—
어느덧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얼런뎛**
18세기
- **어누뎛**
19세기20세기
- **어느뎛**
19세기20세기현재
- **어느뎛**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8종

얼런뎛, 얼넌뎛, 어누뎛, 어누뎛, 어누뎛, 어누뎛, 어느뎛, 어느뎛

↪ 어느뎛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어느뎛’의 옛말인 ‘얼런뎛’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얼런뎛’은 ‘얼런’과 짧은 시간을 뜻하는 명사 ‘뎛’이 결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얼런’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8세기에 나타나는 ‘얼넌뎛’은 근대 국어 시기에 ‘르르’을 ‘르ㄴ’으로 적던 경향에 의해 나타난 형태이다.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19세기에 ‘어누뎛’이 나타나고,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가 ‘ㄴ’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 ‘어느뎛’이 나타난다. 19세기에 나타나는 ‘어누뎛’과 ‘어누뎛’은 제3음절의 모음이 ‘·’와 ‘ㅏ’로 표기된 것이고, 19세기에 나타나는 ‘어누뎛’과 20세기에 나타나는 ‘어느뎛’은 제3음절의 모음이 ‘ㄴ’로 표기된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까지 ‘어느덧’, ‘어느덧’, ‘어느덧’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어느덧’으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어느덧

전체 용례 1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얼런덧, 얼넌덧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얼런덧, 얼넌덧

출처 1775 역어유해 보:58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不覺的 얼런덧.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778 방언유석 4:35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不覺的 얼런덧.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790 몽어유해 하:42ㄱ

용례 03

66 문헌 용례

不覺的 얼넌덧.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어느덧, 어느덧, 어느덧 외 2종 용례 7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어느덧, 어느덧, 어느덧, 어느덧, 어느덧

출처 19세기 혜경궁홍씨연간 1017-1

용례 04

66 문헌 용례

어느덧 이들도 남스온 날 적스오니.

現代어 풀이

어느덧 이 달도 남은 날이 적으니.

출처 1832 추사가연간 39

용례 05

66 문헌 용례

조손이 얼굴도 모르고 어느덧 참보를 드르니 더욱 악착하고

現代어 풀이

조손이 얼굴도 모르고 어느덧 참혹한 소식을 들으니 더욱 악착하고.

출처 1848 의성김씨학봉종가연간 9

용례 06

66 문헌 용례

어느덧 잊디 되여 원악 이미한 원일이 지격하니

現代어 풀이

어느덧 이때가 되어 워낙 애매한 정월 초하룻날이 가까이 닥치니

출처 1848 의성김씨학봉종가연간 237

용례 07

66 문헌 용례

유교덕의는 니외 그만하시나 어느덧 원통호온 데스 디나오니 불쌍 7이업습누이다

現代어 풀이

유교택(酉橋宅)에는 내외 그만하시나 어느덧 원통한 제사가 지나니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출처 1899 제국신문 2월 15일 1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작년 정월 엇그제인 듯 어느덧에 일 년 지나 기해년 봄이로다.

현대어 풀이

작년 정월 엇그제인 듯 어느덧 일 년 지나 기해년 봄이구나.

출처 1899 제국신문 2월 15일 2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아무리 무심하되 인정 소리 들거르면 어느덧에 오정일세.

현대어 풀이

아무리 무심하되 인정 소리 들으면 어느덧 정오일세.

출처 1899 제국신문 2월 15일 2면

용례 10

66 문헌 용례

공일이 도라오면 사람마다 후는 말니 세월도 잠간이라 어느덧에 공일인가.

현대어 풀이

공휴일이 돌아오면 사람마다 하는 말이 세월도 잠간이라 어느덧 공휴일인가.

20세기 어느덧, 어누덧, 어누دت 외 1종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어느덧, 어누덧, 어누دت, 어느دت

출처 1911 월하가인 11

용례 11

66 문헌 용례

심 진수가 언덜겔에 차에 올라 기적 소리 몇 마디 가온디 어느덧 인천에를 내려왔는디.

현대어 풀이

심 진사가 얼덜겔에 차에 올라 기적 소리 몇 마디 가운데 어느덧 인천에를 내려왔는데.

출처 1912 구의산 상:29

용례 12

66 문헌 용례

이 닻에 드러올 씨에 겨오 돌스 지닌 으히라셔 어느덧 더러케 장성히셔 오늘날 장가를 가니.

현대어 풀이

이 닻에 들어올 때에 겨우 돌 지난 아이였는데, 어느덧 저렇게 장성해서 오늘날 장가를 가니.

출처 1913 약산동대 17

용례 13

66 문헌 용례

임염荏苒흔 광음光陰이 어느덧 세 번 봄을 지내엿는지라

현대어 풀이

임염한 광음이 어느덧 세 번 봄을 지냈다.

출처 1913 한월 하:1

용례 14

66 문헌 용례

엇그제 동풍 습월 방초식이 어느덧 황국 단풍이 만발후였다.

현대어 풀이

엇그제 동풍이 (불던) 삼월의 방초(芳草) 색이 (변하여) 어느덧 노란 국화와 단풍이 만발하였다.

출처 1913 한월 하:115

용례 15

66 문헌 용례

어느덧 날이 밝거던지 벼랑간 읍중이 씨들씩하더니.

현대어 풀이

어느덧 날이 밝았던지 벼랑간 읍중(邑中)이 떠들썩하더니.

산천초목도 봄철을 다 보내고 어느덧 단풍 낙엽 되나고나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어느덧에 관한 주석

‘얼런덧’과 ‘얼년덧’의 ‘얼런’, ‘얼년’은 시간을 끌지 아니하고 바로를 뜻하는 부사 ‘얼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사 ‘얼른’은 15세기에 ‘어른’의 형태로 나타난 이후 문헌에서 보이지 않다가 19세기에 ‘얼는’, ‘얼년’의 형태로 나타난다. ‘얼런덧’과 ‘얼년덧’의 ‘얼런’, ‘얼년’이 부사 ‘얼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사가 명사 ‘덧’을 꾸미는 것이라서 이를 문법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관형사 ‘어느’는 15세기부터 ‘어느’, ‘어느’로 쓰였기 때문에 ‘얼런’, ‘얼년’이 ‘어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얼런’, ‘얼년’이 19세기에 ‘어느’, ‘어느’로 나타나는 것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단순히 단어의 발음이 변했다고 보기보다는 ‘얼런’, ‘얼년’이 관형사 ‘어느’, ‘어느’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교체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얼런’, ‘얼년’이 부사의 기능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사 ‘덧’을 꾸미다가 19세기에 ‘얼는’, ‘얼년’의 형태로 활발하게 부사로 쓰이게 되면서 그 자리를 발음이 유사하면서도 문법적인 부담이 없는 ‘어느’, ‘어느’가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역시 명확하지 않다.

어느덧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어느덧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不 뜻·음 아닐 불
총 4획 · 부수 一



不

획순 자료 미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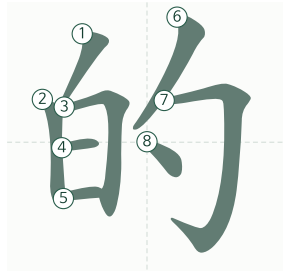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不/

覺 뜻·음 깨달을 각
총 20획 · 부수 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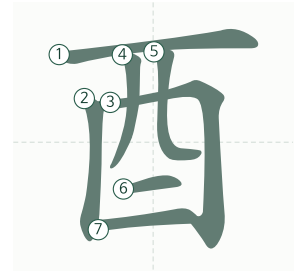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覺/

的 뜻·음 과녁 적
총 8획 · 부수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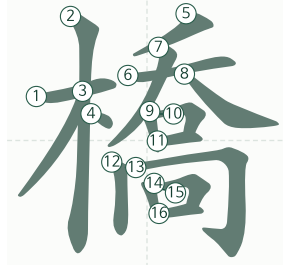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的/

酉 뜻·음 닭유
총 7획 · 부수 酉



hanja.wordrow.kr/한자/酉/

橋 뜻·음 다리 교
총 16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橋/

宅 뜻·음 집택
총 6획 · 부수 宀



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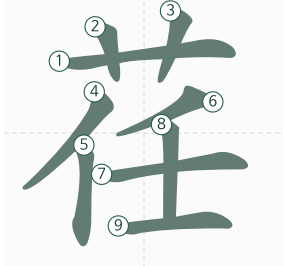
획순 자료 미제공

hanja.wordrow.kr/한자/宅/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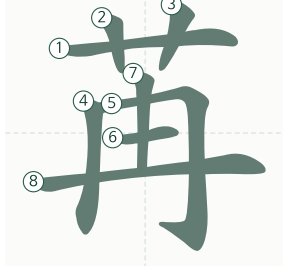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苙 뜻·음 들개 입
총 10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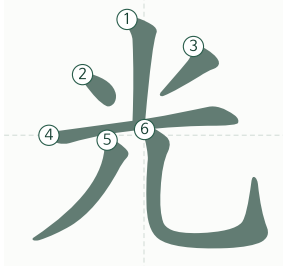
사전 10획 · 획순 그림 9획
hanja.wordrow.kr/한자/苙/

苳 뜻·음 풀우거릴 염
총 9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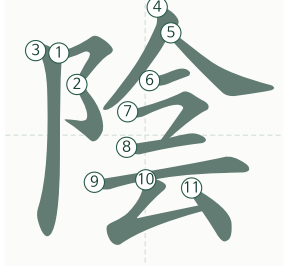
사전 9획 · 획순 그림 8획
hanja.wordrow.kr/한자/苳/

光 뜻·음 빛광
총 6획 · 부수 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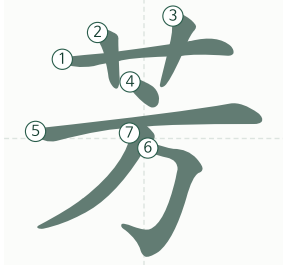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光/

陰 뜻·음 그늘음
총 11획 · 부수 阜

hanja.wordrow.kr/한자/陰/

芳 뜻·음 꽃다울 방
총 8획 · 부수 艸

사전 8획 · 획순 그림 7획
hanja.wordrow.kr/한자/芳/

草 뜻·음 풀초
총 10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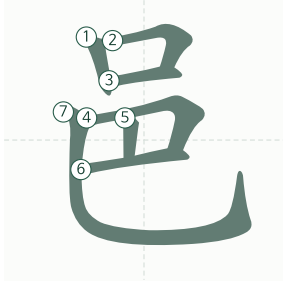



사전 10획 · 획순 그림 9획
hanja.wordrow.kr/한자/草/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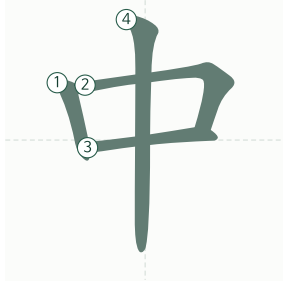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邑 뜻·음 고을 음
총 7획 · 부수 邑



hanja.wordrow.kr/한자/邑/

中 뜻·음 가운데 중
총 4획 · 부수 丨



hanja.wordrow.kr/한자/中/